

전원마을 500호 조성 박차 희망하우스 리모델링 추진

순창군-전북개발공사, 인구 소멸위기 극복 본격화

순창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민, 귀농·귀촌인, 은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순창을 백산리 50호와 구림면 운북리 60호에 대한 전원마을 조

성 투자 계획이 승인되면서 기 승인된 금과면 방축리 46호와 동계면 구미리 30호 등 현재까지 186호가 승인을 마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는 2개 지역의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심사하였고,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자체 투자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북개발공사는 순창군과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완공까지 함께할 예정이며,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은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 품질 높은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순창군은 작년말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읍면지역 후보지 450필지에 대한 합동 실사를 시작으로, 사업 타당성이 우수한 부지에 대해 기본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이사회 통과는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첫 투자로 해석된다.

아울러, 군은 오는 7월 중에 전북개발공사와 실시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이르면 10월 중으로 기본설계 등의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은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의 전원마을 조성 이외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한 전원마을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1호 민간투자의 시종인 금과 방축마을 인근에 46세대 규모의 덕진빌리지 전원마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순창군청 제공)



재경 임실군민회회원 80여명이 지난 1일 고향 방문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경 임실군민회, 고향 임실 방문

임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센터 치즈테마파크·옥정호 등 방문

재경 임실군민회(회장 이종명) 회원 80여명이 지난 1일 고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고향 임실의 가족, 친구와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임실군의 변화와 발전상을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한 애환심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

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처음 일정으로 임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센터를 방문하여 임실의 대표특산물 중 하나인 청실홍실 임실고춧가루 생산 과정 시설을 견학, 임실 고춧가루 명성을 확인하였고, 매년 가을 개최되는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에 대한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임실치즈의 역사, 수상경력, 우수성 등에 대하여 심 민 군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임실치즈를 원료로 한

친한F&B 공장을 방문해 임실치즈를 활용한 소시지 제품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을 현장에서 실감했다. 공장 견학 후, 100여종 2만4,000여종의 장미가 만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을 방문한 회원들은 활짝 핀 장미에 매료돼 서울중앙, 전남 곡성과 견줄 수 있는 장미원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올해 3월 정식개장 후 5월까지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봉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옥정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요거트도 마시면서 오래간만에 고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귀농귀촌·청년 희망의 보금자리 빈집재생 진행

임실군이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동의 빈집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7동의 빈집에 5억7,000만원을 투입, 희망하우스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주거 공간을 재창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귀농과 귀촌을 유도함으로써 주거 만족 향상은 물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과 함께 농촌 빈집 증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업 대상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공기이어야 한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한 빈집 소유자에게는 재생 비용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빈집 재생 후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4년간 무상임대해야 한다.

빈집 정비와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잠재된 농촌의 분위기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 민 군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재난 대비 현장훈련 실시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태풍이 남원시를 관통하며 각종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상황판단 회의 △긴급재난 문자 발송 △사고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 대응 △주민 대피 △실종자 수색 △피해시설 수습·복구 등 재난대응에 대한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실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 전달과 관계기관과의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에는 남원시,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보건소, 제7733부대 3대대, 대한적십자사 남원지구협의회, 남원시 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KT 등 12개 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 186명이 참여, 각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연습하는 현장훈련으로 진행,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성공리에 마쳐

순창군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높은 우수율을 달성해 한국상수도협회 성과관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우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각 가정집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총 5년간 1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순창읍을 6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4개의 소블록으로 세분화하여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율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달성해 수용가를 24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 누수를 발견하도록 원격 점검기 또한 2693대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상수도 우수를 향상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 예상 목표 우수율이었던 85%보다 무려 13.8%가 높은 98.8%를 달성했으며, 이 수치는 2018년 64%에 불과했던 우수율을 34.8% 넘긴 수치로 연간 37만톤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결핵 전파 차단 나서

남원시보건소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군 무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양성자 치료·관리 등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같은 실내공간을 사용하며 잠시 간헐한 접촉하면 결핵균에 감염될 수 있고, 초기에는 특징적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에 소속돼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보건소에서는 주간보호센터, 마을회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유증상자·건강검진유소군자·기숙사소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진 의무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 등 결핵검진(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소속기간 중 1회)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결핵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관 2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

남원시는 3월 2024년 평생학습관 2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이번 개강하는 프로그램은 이터(learn)저런(learn)(평생학습관의 △영어회화 △홀패션 △패션/양재 △디저트(빵,쿠키) △문인화/한국화/서예 △캘리그래피 △컴퓨터 실무(엑셀, 사무자동화) △영화 인문학 등 25개 과정과 '어디나 교실'(외부공간 연계)의 △우쿨렐레/하모니카△생활동화/캘리·한지공예 △세라믹·포크아트 △목공가구 만들기 등 9개 과정이다. 특히, 이번 2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패션/양재/패션/웃만들기와 컴퓨터 분야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설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평생학습관(620-5262~3)으로 문의하면 되고, 개설 확정된 프로그램 중 일부 정원 미달 강좌에 대해서는 6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